‘그때 그 자리’…첫 우승 감동 다시한번

함평골프고 출신 신지애, KLPGA 2023 시즌 개막전 출격

13년 전 우승 코스…“바뀐 만큼 새로운 느낌으로!”
직전 호주오픈 역전패 준우승 아쉬움 털고 도전장
올해 무관 ‘심기일전’ 맞춤형 준비“내년엔 다를 것”

함평 골프고 출신 신지애(34)는 2009년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 시즌 첫 우승을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거뒀다.

2008년에 브리티시여자오픈과 미즈노 클래식, ADT 챔피언십 등 3차례 LPGA투어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지만, 모두 LPGA 투어에 입성하기 전이었다.

신지애는 2009년부터 정식으로 LPGA 투어에 입회했고,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우승 물꼬를 튼 뒤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 아칸소 챔피언십 등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LPGA 투어 상금왕과 신인왕을 석권했다.

HSBC 위민스 챔피언스는 신지애가 LPGA 투어 멤버 신분으로 처음 우승한 대회다.

9일부터 사흘 동안 치러지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2023 시즌 개막전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 개최지인 싱가포르 타나메라 컨트리클럽이 당시 신지애가 HSBC 위민스 챔피언스 우승을 거둔 곳이다.

이 대회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신지애는 지난 7일 대회 공식 기자회견에서 “미국 멤버가 되고 처음 와서 우승했던 곳이라 의미가 크고,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왔다”는 신지애는 그러나 “코스가 전체적으로 다 바뀐 것 같다”고 당시 기억과 코스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혔다.

신지애는 “예전 기억이 아닌 새로운 느낌으로 경기를 치러야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 대회 직전에 치른 호주 여자오픈 최종일에 역전당해서 준우승을 한 신지애는 “ 올해 우승이 없어서 지난 대회가 아쉬웠다. 지난 대회를 돌이켜보며 무엇을 더 잘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경기하겠다”고 우승 욕심도 숨기지 않았다.

내년에 35세가 되는 신지애는 “스윙을 바꾸는 것보다 지금 가진 걸 유지하고, 체력과 컨디션을 잘 조절하는 게 목표다. 내가 뭘 가졌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골프는 시즌이 길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다. 내년에도 긴 시즌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내년 계획도 소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6승씩 거두며 상금왕 2연패를 이룬 박민지(24)는 “지난해 굉장히 잘해서 올해는 우승 한 두 번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우승을 해서 행복한 1년이었다”면서 “지금이 내 전성기라 생각한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주면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신지애를 보고 골프를 시작한 ‘지애 키즈’였다고 털어놓은 박민지는 “너무 좋은 롤 모델이다. 예전에 오렌지라이프챔피언십에 출전했을 때 참가 선수 총 우승 횟수가 150승이었다. 그때 나는 4승이었다. 선배들과 격차가 참 멀어 보였다. 그때 좋은 선수들과 경기했던 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밝혔다.

박민지와 경쟁 끝에 대상을 차지한 김수지(26)는 “시즌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했는데 다음 시즌 개막전이 찾아왔다.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베트남에서 전지훈련을 한다. 올해 아쉬웠던 쇼트게임, 비거리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연습하려고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신지애가 지난 4일 열린 LPGA 투어 ISPS한다 호주여자오픈에서 샷을 날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2022 전남도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워크숍에 참가한 전문체육자들이 내년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워크숍 성료

내년 전남 國體 성공개최 결의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5-6일 신안에서 ‘2022년도 전남도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22개 종목, 34명의 지도자들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내년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상위입상을 위해 결의를 다짐과 동시에 전남도체육회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 지도자 간 소통 및 화합을 통한 동료의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 내년도 전문체육지도자 운영계획 안내 및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고, 교양 과목(플롯과 이야기)과 레크레이션을 통해 화합을 다졌다.

이어 전남도체육회는 지도자들과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주고 받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기동 전남도체육회장 직무대행은 “전남체육을 이끌어가느라 고생하는 지도자들을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내년 안방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거는 기대와 역할이 크다”며 “전남체육이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8일 열린 ‘2022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에서 생애 처음으로 제네시스 대상을 받고, 상금 7억9천132만원으로 상금 1위, 골프 기자단 선정 기량 발전상까지 3관왕을 수상한 김영수가 트로프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KPGA 제공〉

김영수, 제네시스 대상 수상

상금왕·기량 발전상 ‘3관왕’

김영수(33)가 8일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제네시스 대상 2022’시상식에서 3관왕의 기쁨을 맛봤다.

올해 4월 제17회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부터 11월 LG 시그니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까지 21개 대회, 총상금 203억원 규모로 진행된 2022시즌 KPGA 코리안투어를 결산하는 이날 행사는 수상자들과 대회 스폰서 등 골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네시스 포인트 5천915점을 쌓은 김영수(33)가 생애 처음으로 제네시스 대상을 받았고, 상금 7억9천132만원으로 상금 1위, 골프 기자단 선정 기량 발전상까지 3관왕에 올랐다.

올해 제네시스 챔피언십과 LG 시그니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영수에게는 1억원의 보너스 상금과 제네시스 G70 슈팅브레이크 1대가 주어졌다.

또 KPGA 투어 시드 5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과 제네시스 스코틀랜드오픈 출전권, DP 월드투어 시드 1년도 받게 됐다.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은 배용준(22), 로케트 배터리 장타상은 평균 비거리 317.1야드를 찍은 정찬민(23)이 각각 수상했다. 최저타수상인 덕춘상은 평균 69.9타의 김비오(32)가 받았다.

올해 PGA 투어 2승을 거둔 김주형(20)이 해외 특별상을 받았고, 올해의 캐디상은 김비오의 캐디인 이순석(30) 씨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김연경 효과’ 빛고을 배구 열기 후끈…광주페퍼스타디움 올 시즌 첫 전석 매진

지난 7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과 흥국생명의 경기에 빛고을 배구팬 3천여 명이 찾아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AI페퍼스 구단은 ‘김연경 파워’로 관람객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기존 2천700석에 3층에 마련된 일반석 300석을 추가로 개방했다. 올 시즌 페퍼스타디움 관람석이 모두 매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경기는 예매 개시 2시간 만에 1-2층에 마련된 2천700석이 모두 마감됐고, 이후 3층 일반석도 하룻만에 모두 매진되며 빛고을 배구열기를 실감케 했다. /연합뉴스

‘12연패’…AI페퍼스, 개막 최다 연패 불명예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개막 최다 연패(12연패) 불명예 기록을 썼다

AI페퍼스는 지난 7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의 2022-2023시즌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대3(22-25 20-25 25-23 14-25)으로 패했다.

개막 후 1, 2라운드 12경기를 모두 패한 AI페퍼스는 승점 1점으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렀다.

종전 기록은 2007-2008시즌 현대건설이 남긴 개막 11연패다.

AI페퍼스는 최근 김형실 감독이 자진 사퇴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김연경과 엘레나가 버틴 흥국생명의 벽을 깨지 못했다.

매 세트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AI페퍼스는 1세트 한때 15-11로 4점차 리드를 잡기도 했지만 뒷심 부족으로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며 22-25로 패했다.

2세트는 치열했던 시소게임을 펼치며 17-19까지 추격전을 펼쳤지만 이렇다 할 찬스를 잡지 못한 채 20-25로 내줬다.

3세트 반전이 일어났다.

니아 리드가 고비마다 득점을 올리며 세트를 주도했다. 24-23에서 흥국생명의 추격을 뿌리치고 값진 세트 승을 따냈다.

4세트 체력의 한계에 부딪힌 AI페퍼스는 김연경과 엘레나의 쌍포에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14-25로 졌다.

1, 2라운드를 전패한 AI페퍼스는 10일 인천 삼산경기장에서 난적 흥국생명을 상대로 3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최하위 AI페퍼스의 당면 과제는 연패 탈출이다.

6위 KGC인삼공사(4승7패·승점 12점)와 격차도 벌어진 상황, 빠른 시일 내 시즌 첫 승을 거두고 추격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순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때다. /박희중기자

은퇴한 이대호, 일구회 대상

이정후 ‘최고 타자상’·고우석 ‘최고 투수상’ 수상

프로야구에 큰 족적을 남기고 은퇴한 이대호(40)가 한국프로야구 OB 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대호는 8일 열린 ‘2022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시상식에서 대상 트로피를 받고 “떠나는 날까지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수 생활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팬들이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며 “후배들이 우승의 꿈을 대신 이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대호는 2010년 타격 7관왕, 9경기 연속 홈런 등 각종 대기록을 남긴 프로야구의 레전드다.

최고 타자상은 타율 (0.349), 안타(193개), 타점(113점), 장타율(0.575), 출루율(0.421) 등 5개 타이틀을 거머쥔 이정후(키움 히어로즈)가 받았고, 42세이브를 올린 고우석(LG 트윈스)은 최고 투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두산 베어스의 불펜 투수 정철원은 신인상, SSG 랜더스의 베테랑 투수 노경은은 의지노력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연합뉴스

8일 열린 2022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시상식에서 이대호가 일구대상을 받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과 흥국생명의 경기에서 흥국생명 김연경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3경기만 더 뛰면’ 김연경, 국내 첫 FA 자격 취득

여자 프로배구 흥행을 주도하는 거포 김연경(34·흥국생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을 앞뒀다.

김연경은 8일 현재 2022-2023시즌 정규리그 12경기에 출전했다. 앞으로 3경기만 더 뛰면 올 시즌 후 FA 자격을 얻는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매 시즌 출장 경기가 정규리그 전체 경기의 40% 이상일 경우 1시즌 경과로 보며, 이런 조건을 5시즌 충족 시 FA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김연경은 올 시즌 전체 경기 수(36경기)의 40%인 15경기를 뛰면 FA 요건을 충족한다.

한일전산여고를 졸업하고 2005-2006시즌 데뷔한 김연경은 4시즌을 뛴 뒤 임대 선수 신분으로 일본으로 넘어가 터키 등 다른 나라에서 활약하다가 2020-2021시즌을 앞두고 11년 만에 V리그에 돌아와 5시즌을 채웠다.

다만, 국외에서는 FA 신분이었지만, 국내에서는 V리그 규정(6시즌)에 1시즌이 모자라 FA가 될 수 없었다.

지난해 중국에서 활동한 김연경은 1년 만에 다시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2022-2023시즌에 돌아왔으며 이제 FA 취득에 필요한 6번째 시즌 충족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